

우리말 소리갈(國語音聲學)에 대한 연구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극로를 중심으로-

A Historical Review of Sorigal (Korean Phonet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이 숙 회 · 고 도 흥*
Sukhui Lee · Do-Heung K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tribution made by some phoneticians including Si-gyung Chu, Du-bong Kim, Hyun-bae Choi, and Geuk-ro Lee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known that the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existence of traditional phonetics and modern phonetics. Si-gyung Chu well recognized the physical nature of speech sounds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Although Du-bong Kim adapted Chu's approach in some ways, he made some more detailed modifications in explaining the vocal organs. Hyun-bae Choi tried to explain the consonants and vowels systematically based on Western theories of phonetics. Finally, Geuk-ro Lee made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by introducing the experimental phonetics.

Keywords : traditional phonetics, vocal organs, experimental phonetics

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음운학과 현대 음성학의 과도기적 시기였던 1910년~1940년대에 이루어진 음성·음운에 대한 연구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서구의 언어이론이 수용되던 때이며, 특히 30년대 전후의 업적물들은 본격적인 음성학 연구의 시발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국어음성학사상 주목되는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극로의 연구업적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주시경의 음성에 대한 연구는 『대한국어문법』(1906), 『國語文典音學』(1908), 『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 등이 있는데, 그의 음성에 대한 연구 『말의 소리』에 집약되어 있다. 김두봉의 음성 연구는 『조선말본』(1916), 『김더조선말본』(1922)의 첫부분인 「소리갈」에 잘 나타나 있으며, 최현배의 음성 연구는 『우리말본 첫재매』(1929), 『우리말본』(1937)의 「소리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극로는 한글誌를 통해 발표한 논문들¹⁾의 내

*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 이극로(1932 a). 말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는가?, 한글 제1권 제2호.

용을 집약하여 『實驗圖解 朝鮮語音聲學』(1947)으로 간행하였다.

II. '소리(音聲)'에 대한 인식

1. 주시경의 말소리 연구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의 국어 연구 업적이 그의 짧은 생애에 비해 국어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유길준의 『大韓文典』(1908)에서 음성과 문자를 구별하는 시도²⁾가 있기는 했으나, 문자와 음성, 음운과 문자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했을 뿐더러 자·모음의 구별에 대해서도 매우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주시경은 소리(音)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음성·음운의 이론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시경은 최초로 소리(音)가 지닌 물리적 성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1908 : 5). 그는 소리가 대기 중의 어떤 물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 진동함으로써 일어나는 공기 입자의 운동 현상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파(sound wave)를 '空氣의 波動'이라 하고, 진동을 전달하는 매질 역할을 공기가 하고 있으며 진공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국어문법』에서는 소리(音)의 발생, 전파, 특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음의 發源'은 '物振', 즉 사물의 진동이 소리가 발생하는 근원이 됨을 말한 것이다. 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소리가 전파됨을 '음의 퍼어짐'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국어문전음학』에서의 '空氣의 波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소리를 내는 물체의 특성에 따라 그 소리 또한 달라지는데 이를 '音性'이라 하였다. 『말의 소리』에서는 이러한 소리의 발생, 전파, 특성에 대한 인식을 각각 '소리의 남', '소리의 퍼어짐', '소리의 빛'으로 구분하고 있다(1914 : 7).

주시경(1908 : 6)은 '雷聲과 風聲과 木聲과 石聲과 如흔 者'을 '無別聲'이라 하고, '人類의 言語와 如흔 者'를 '有別聲'이라 하여 소리를 구별하였다. 따라서 폐로부터 공기가 발원된 '無別聲'이 성도를 거쳐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을 거치면서 분별을 만들어 되는 소리 즉 '有別聲'이 된다. 이는 발화의 기능적 구성요소인 발동(initiation), 발성(phonation), 조음(articulation)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1932 b). 조선말의 홑소리, 한글 제1권 제4호.

- (1933. 8).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되나, 한글 제1권 제9호.

- (1934. 8). 조선말 소리, 한글 제2권 제5호.

2) “音韻이라 呼는 者는 人의 肺腸으로부터 呼出하는 空氣가 聲帶 又 口腔内の 諸機關에 觸發하는 聲音을 謂함이라 假令 아, 가, 나, 다, 사, 자, 하 갖튼 者이라…音은 其 肺臟으로부터 呼出하는 空氣가 聲帶에만 接觸함과 又 其他 機關에 接觸하는 區別에 因하여 三種으로 分함을 得하니 (一)母音(二)父音(三)子音이니라(1908 : 4).” 이를 현대적 의미로 보면 '音韻'은 音聲에, '音'은 音韻에 부합되는데 둘의 개념 또한 모호하며, 이러한 모호함은 최광옥의 『大韓文典』(1908)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終聲은 '子音'을 이루는 구성 성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子音'이라는 것은 音節에는 가까우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주시경의 이론은 당대의 운학(韻學)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특히 소리(音) 연구에 있어서는 최초로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인식하여 음향음성학의 효시가 되었다. 주시경의 학문적 이론은 그의 수제자인 김두봉과 최현배 등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2. 김두봉의 말소리 연구

주시경(1914) 이후 음성학에 대한 눈에 띄는 기술을 보이는 것이 김두봉(金斗奉 1889~1960?)의 저서인 『조선말본』(1916)과 『김더조선말본』(1922)으로, 당대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³⁾ 김두봉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주시경의 조음음성학의 이론에 생리음성학을 도입하였다. 특히 ‘소리내는 틀’이라 하여 조음기관의 해부도를 첨가시켜, 발음기관을 상술(1922 : 13~17)한 것이 주목된다.



그림 1. 김두봉의 후두 해부도(1916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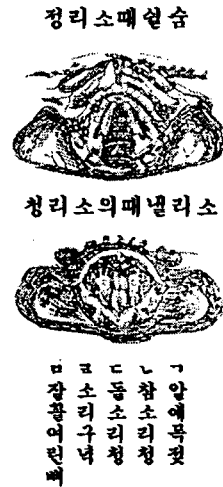


그림 2. 김두봉의 성대 해부도(1916 : 3)

김두봉(1916)은 喉頭를 ‘숨대머리’, 咽頭腔을 ‘우목구녕’이라 칭하고, 말소리란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 나는 것으로, 숨대머리, 우목구녕, 목젖, 코, 입과 같은 조음기관들에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리가 된다고 하였다(1916 : 1). 이어 각각의 발음기관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김두봉이 사용한 조음기관의 명칭은 지금과는 얼마간은 다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16 : 1~5).

3) 이는 李重乾의 「ㄱ형을 생각함」(동인지 한글 제1권 제3호, 192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김더조선말본」의 간행을 보고 끊임없는 김두봉의 연구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 책은 “남에게 자랑할만한 世傳之物”이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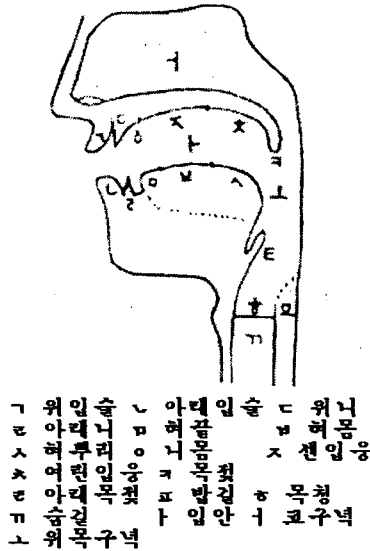


그림 3. 김두봉의 '소리내는 모든 틀'(1922: 13)

김두봉(1916)에서 발동기관인 폐는 '부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기도인 '숨그릇(呼吸器)'이나 후두인 '숨대가지(氣管支)'의 끝에 달렸으며, 후두는 인두강인 '우목구녕'으로 이어진다.

김두봉이 제시한 후두의 해부도를 살펴보면 '숨대머리'(후두)는 '알에목젖'과 '소리칭' 그리고 '소리구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에목젖'은 후두개를, '소리칭'은 성대, '소리구녕'은 성문을 각각 이르는 명칭인데, 성대인 '소리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성대를 '참소리칭'과 '돌소리칭'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참소리칭'은 성대인대를, '돌소리칭'은 성대 주위의 근육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두봉은 탄력을 '돌이킴'이라고 하였으므로, '돌소리칭'에서의 '돌-'이란 탄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대가 진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대가 지닌 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성대는 후두의 '잔꽃여린뻘' 즉 피열연골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데, 줄어 팽팽해지며 성문이 좁아질 때 폐로부터 내쉬는 숨을 만나면 탄력 있는 성대가 떨려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폐와 성대의 조절 과정을 거친 후 기류가 지나가는 것은 성도이다. 기도로부터 성대 그리고 입술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조음기관을 살펴보면, '숨대'와 '밥길'이라 하여 기도와 식도를 나누고 있다. 인두강은 '우목구녕'이라 명명하고, 기도와 식도로부터 위쪽의 비강과 구강에 이르는 사이의 공간으로, 성대에서 나는 소리가 비강과 구강 그리고 인두강,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함께 울린다고 하여 공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였다. '코구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비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젖에 의해 인두강과 트이거나 막힌다.

'입안' 즉 구강은 인두강의 앞에 위치하며, 위턱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아래턱이 자유

4) 김두봉(1922 : 13-14)에서는 '아래목젖'으로 표기하였다.
 5) 김두봉(1922 : 14)에서는 '잔꽃뻘'라 하였다.

롭게 움직여 아랫니와 입술, 이가 아래턱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혀는 ‘혀뿌리(舌根)·혀몸(舌體)·혀끝(舌尖)’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입안(口腔)의 조음기관들을 ‘목젖’, ‘여린입웅’(연구개), ‘센입웅’(경구개) 등과 같이 보다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1922 : 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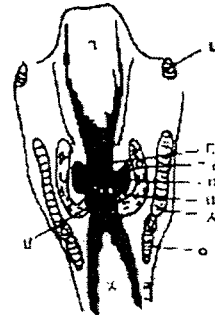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두봉은 말소리(speech sounds)를 내는 데에 관여하는 음성 기관(vocal organs)에 대해 생리학적 입장에서 조음음성학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것은 내용면에서나 첨부된 해부도에 있어서나 현대 음성학에서의 기술에 상당히 근접한 것이었다. 이러한 김두봉의 조음음성학 도입과 ‘소리갈’에 대한 기술은 국어음성학에 있어서 현대 음성학에로의 커다란 진보였다.

3. 최현배의 말소리 연구

김두봉이 도입하여 발전시킨 국어음성학에 있어서의 생리·조음음성학적 기술은 최현배의 『우리말본 첫재매』(1929)와 『우리말본』(1937)6)에 와서 체계화된다. 최현배는 음성기관을 ‘숨쉬는대(呼吸部), 소리내는대(發音部), 소리고루는대(調音部)’로 나누었는데 이는 주시경(1914)나 김두봉(1922)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다 진보된 분류법이라 하겠다. 『우리말본 첫재매』와 『우리말본』은 몇몇 조음 기관들의 명칭의 차이만을 보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말본 첫재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숨쉬는대’라 함은 곧 폐를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폐와 ‘숨사대’는 조음기관은 아니나 내쉬는 공기가 소리의 원동력이 되므로 이들도 조음기관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숨사대’란 기도로써 『우리말본』에서는 ‘울대(氣管)’라 하였다.

‘소리내는대’는 폐로부터 나온 공기가 비로소 소리가 되는 곳인 ‘숨사대머리’, 즉 후두로서 김두봉이 ‘숨대머리’라고 한 것과 같으며, 이 명칭은 『우리말본』에 와서는 ‘울대머리’로 바꾸었다. 후두를 구성하는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피열연골을 주로 모양에 따라 각각 ‘가라저 여린뼈’와 ‘방패여린뼈’, ‘헤침여린뼈(잔꼴여린뼈, 마늘모여린뼈)’7)라 하였다. ‘목청’, 즉 성대는 피열연골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며, 이때에 두 성대의 사이틈인 성문을 ‘소리문’이라 하였다. 이 성문을 다시 ‘힘줄소리문’과



얼어 죽은 송장의 울대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는 것이나, 그 쪽쪽은 때어 버렸으므로, 뒤에서 울대머리 속을 보는 것이 되느니라

- 가 울대머리
- 나 혀뿌리
- 다 혀몸
- 라 혀끝
- 마 Morgan님구멍(폴란 님 구멍)
- 바 목청
- 사 방패 여린뼈
- ㅇ 가라저 여린뼈
- ㅈ 울대

그림 4. 최현배의 후두 해부도(1937)

6) 기술상에 있어 두 저서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우리말본 첫재매』에서는 단음과 중음에 대한 기술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우리말본』에 와서는 모음과 자음에 대한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소리(音)’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음절 생성에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음성학적 관점으로 변화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헤침여린뼈’는 성대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붙인 명칭이며, 그 모양이 잔과 같다 하여 ‘잔꼴여린뼈(杯狀軟骨)’, 마늘모와 같다하여 ‘마늘모여린뼈’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린뻘소리문’으로 나누었는데, ‘힘줄소리문’은 성대 사이에 생기는 틈을, ‘여린뻘소리문’은 피열연골 사이에 생긴 틈을 이르는 말이다. 이 성문이 좁아져 날숨의 공기 흐름을 막으면, 그 공기의 압력에 의해 성대가 떨어 울려 ‘풍류소리(樂音)’을 내게 된다고 하고, 이때에 나는 소리를 ‘울림소리’ 즉 유성음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성대를 떨어 울리지 않고 성문을 그냥 지나온 공기으로써 나는 소리는 ‘울림없는 소리’ 즉 무성음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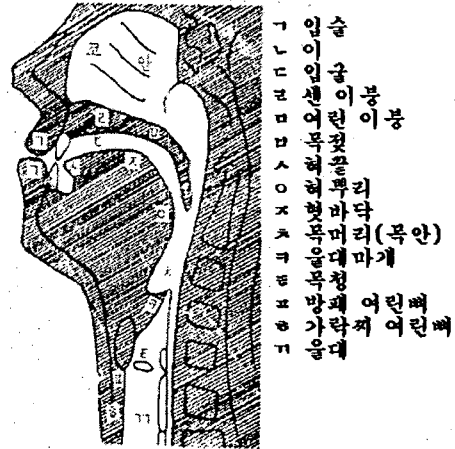


그림 5. 최현배의 조음기관 해부도(1937)

『우리말본』에 삽입된 후두 해부도를 보면, 명칭이 ‘숨사대머리’를 ‘울대머리’로, ‘숨사대’를 ‘울대’로, ‘숨사대막애’를 ‘울대막개’로 바꾼 것 이외에는 『우리말본 첫째매』와 동일하다. 이 해부도에서는 김두봉에서 보이지 않던 ‘몰간(Morgan)님 구멍’이란 것이 있다. 이는 성대 위쪽에 오목한 곳으로 위쪽은 좁아져 성문과 같이 되었으나, 소리는 내지 않는다고 하여 ‘거짓목청’이라고 하였는데, 즉 가성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두봉이 ‘알에목젖’이라 부른 후두개를 최현배는 ‘울대막개(숨사대막애)’라 하였다. 후두인 ‘울대머리’는 말소리의 기본적인 것을 내는 곳으로 성대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의 말에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구강에서는 다만 ‘소리빛’을 더할 뿐이라 하였다.

‘소리고루는대’는 “소릿대(音管, 響管)라 하며, 또 붙음대(附着管)라고도 하나니: 울대머리의 우에 있는 대롱(管)”(1937: 12)이라 하였는데, 성대를 통과해 온 기류들을 특정한 음가를 가진 말소리로 만들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도를 이른다. 이 조음부는 ‘목머리’로부터 ‘코굴’ 혹은 ‘입굴’에 이르는 길로서, 지금의 인두강, 비강, 구강에 대한 명칭이다.⁸⁾

‘목머리’(인두강)는 김두봉의 경우 ‘우목구너’이라 하여 공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적하였으나, 최현배는 수동적 기능만 수행할 뿐, 조음과정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입굴’(구강)은 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는데, 그 설명은 대체로 김두봉과 다르지 않고 현대 음성학과도 거의 같다.

요컨대, 우리말에 대한 음성학 연구는 김두봉과 최현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두봉은 소리(音)를 만들어 내는 음성기관들에 대해 연구하여 조음음성학의 기틀을 잡았다. 한편 조음기관에 대한 명칭은 그 기능에 따라 나름대로 부여하였는데, 이는 조음음성학을 도입하여 우리말과 접목시킴으로써 국어음성학으로 토착화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최현배는 음성기관을 그 역할에 따라 ‘숨쉬는대’, ‘소리내 대’, ‘소리고루는대’로 나누어 발동기관, 발생기관, 조음기관에 이르는 음성 생성 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로써 김두봉으로부터 그 틀을 잡기 시작한 조음음성학은 최현배에 이르러 일단락 짓게 된다.

8) 『우리말본 첫째매』에서는 인두를 ‘목안’이라 했었고, 비강은 ‘코안’, 구강은 ‘입안’이라고 불렀었다.

4. 이극로의 말소리 연구

이 시기의 국어 음성학의 발전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학자가李克魯(1893~1978)이다. 그는 서구의 실험음성학을 직접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말소리에 대한 연구 방법이나 경위는 당대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이극로는 당대 어느 학자들보다도 특이한 경력을 지닌다. 우선 이 시기의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이 주시경의 제자이거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데에 비해, 베를린과 파리, 런던 대학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실험음성학의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적 배경은 남다르다.⁹⁾ 그가 『朝光』 1938년 10월호에 개재한 「나의 이력서」를 보면, 1927년(昭和 2年)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은 이듬해 2월에 베를린대학 음성학 연구실의 연구생이 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프랑스 파리대학 音聲學部 主任인 페르노 教授와 그의 助手 스라메크 博士의 요구에 응해 파리 대학 음성학실험실에서 조선어 음성을 실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9년 귀국 후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음성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한다.

이극로는 국어언어학계에 있어 실험음성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시경으로부터 시발된 국어의 음성학적 연구는 김두봉과 최현배로 이어지면서 조음음성학 및 생리음성학 연구는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방법은 내성적인 관찰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주관적이었으므로 음성의 물리적인 속성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실험음성학이 그 의의를 갖는 만큼 이극로의 『실험도해조선어음성학』(1947)은 그 가치가 인정된다. 이 저서는 출판 시기상으로는 김두봉이나 최현배의 저서들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이극로가 1930년대 초반 『한글』지에 게재했던 小論文들을 총합했다는 점에서 최현배와 동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극로는 음성학을 ‘聲音學’¹⁰⁾이라 부르고 “말소리의 生理的 關係와 物理的 關係와를 研究하는 學問”(1932 b : 43)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生理的 關係’라 함은 음성을 만들어 내는 조음기관에 대한 것이요, ‘物理的 關係’라 함은 음성이 지닌 물리적 성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음성학은 다른 語學분야에 비해 자연과학의 범주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그 변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實驗을 통한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다. 『실험도해조선어음성학』에서는 그 명칭을 ‘音聲學’으로 바꾸고 ‘實驗音聲學’에 대해 정의하기를 “말소리의 位置, 高低, 強弱, 長短, 清濁, 平·硬·激들을 研究하는 自然科學”(1947 : 5)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험기재로 인조구개(Artificial palate)와 후두경, 카이모그래프(Kymograph)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를 소개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조 구개는 석고로 위 입천장의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셀룰로이드를 발라서 만든 것으로 발음할 때 혀가 닿는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기구로서, 홀소리나 닿소리 나는 자리를 아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구라 하였다. 인조 구개에 도장을

9) 『실험도해조선어음성학』의 머리말(1947 : 3)을 보면 그가 실험음성학을 접하게 된 경위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10) 이극로는 「조선말소리갈」(『新聲』, 1930 : 28-29)에서 ‘소리갈(音聲學)’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으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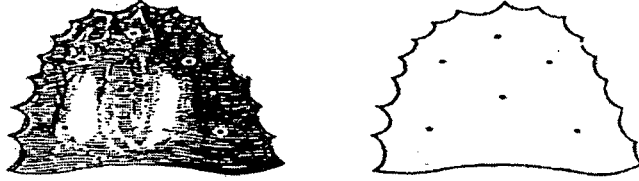


그림 6. 人造口蓋와 人造口蓋 圖章(1947)



그림 7. 목청거울, 聲帶觀察鏡(1947)

새기어서 여섯 개의 점을 찍어 놓고 인조 구개를 입천장에 붙인 뒤에 발음을 실험하는데, 이때 혀가 닿아 침이 묻은 자리를 보고 인조구개 도장자리에 그 위치를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후두경은 '목청거울(聲帶觀察鏡)'이라 하여 목젓 위에 대고 반사경을 비추어 성대의 작용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실험음성학의 연구방법을 기초로 한 바 홀소리와 닿소리에 대해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조구개실험도'를 통해 조음점을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주어 그 이해를 도왔다. 한편 마지막에는 '母音口形圖'라 하여 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의 사진을 普通音과 誇張音으로 나누어 제시(1947 : 48~50)하였다. 또한 카이모그래프를 통해 「비」, 「빼」, 「피」 소리의 '입과 목청의 音波'를 보여주고 있으며(1947 : 5), 혀의 위치로 된 모음 사각도의 기준점을 조음기관의 단면도를 통해 도식화(1947 : 52)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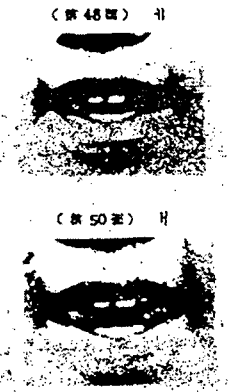


그림 8. 입과 목청의 音波를 그린 '피'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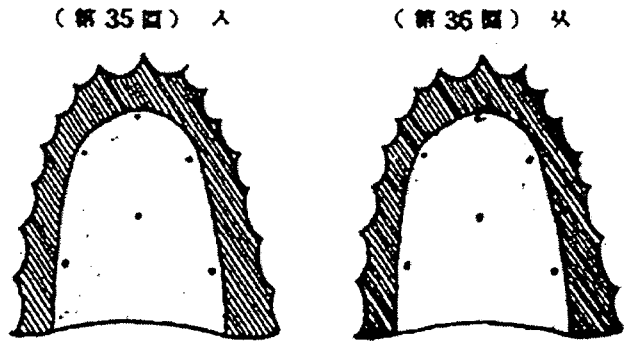


그림 9. /ㅅ/와 /ㅆ/의 인조구개도(1947)

이상과 같은 이극로의 실험음성학에 대한 설명과 연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적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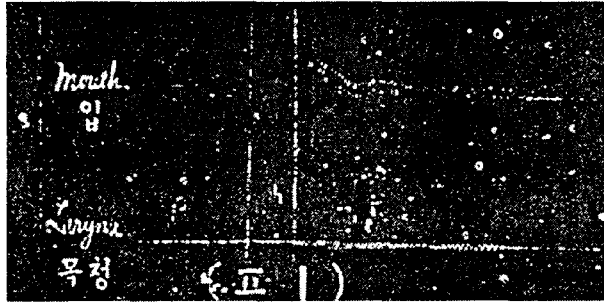


그림 10. 普通音 /ㅏ/와 /ㅑ/의 모음구형도

대에 있어 음성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어음성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개척해나갔다는 점에서도 국어음성학사상 그 의의가 크다.

III. 개별음에 대한 인식

1. 모음(홀소리)과 자음(닿소리)의 구별

주시경은 모음과 자음의 구별에 있어서 음운론적 관점과 음성학적 관점 모두를 염두에 두고 기술하였다.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음이 음절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홀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소리이므로 ‘自發하는 者’이다. 반면 자음은 음절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함께 나타나므로 ‘自在호되 自發치못호고 母音에 依附호 後에야 發호는 者’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그는 사람의 말소리가 ‘空氣의 波動’에 의한 것이라는 물리적인 설명과 함께 모음과 자음에 대해 조음음성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람의 소리는 폐경이 소리의 막(聲膜)을 칠 때 공기의 파동이 일어나고, 공기의 파동은 소리의 관(聲管)을 통하여 목구멍까지 나가다가 牙, 舌, 脣, 齒, 喉에서 제약을 받아 모음과 자음의 분별을 이룬다 하였다(고도홍, 1992 : 30).

그러나 그 명칭은 『국어문법』에서는 ‘自發호는 音’을 ‘웃뜸소리’, ‘웃뜸소리에 附發호는 音’을 ‘붙음소리’라 했으며, 『말의 소리』에 와서는 그 명칭을 ‘홀소리’와 ‘닿소리’로 바꾸고 ‘홀로 나는 소리’와 ‘홀소리에 닳아야 나는 소리’로 각각 정의하였는데, 이는 주시경이 소리의 물리적 성질을 간파하고 조음음성학적으로 그 인식의 기반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부여에 있어서는 음운론적 관점에 기초하였음을 말해 준다.

김두봉(1922 : 17)은 ‘홀소리’와 ‘닿소리’의 명칭에 대해 언급하면서 ‘얼마쯤 뜻의 모자람’이 있다고 하여 주시경의 명칭이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구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미 써오던 이름이고 다른 명칭들보다는 나아 그 명칭만을 따른다고 附言하였다. 그래서, 이런 附言에 앞서 김두봉은 모음과 자음에 대한 정의를 음성학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목청만 떨어 울리어 나는 소리로 다른 내들의 막음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모음의 음성적 자질인 [+voiced]와 [-obstruent]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자음은 “내 쉬는 숨이 내들 각 자리에 어느 한 군데의 막음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라 하여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최현배 역시 그 명칭에 있어서는 주시경을 따르고 있지만 김두봉이 지적한 바를 존중하여 장애를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나누었다. 더 나아가 ‘홀소리와 닿소리의 다름(母音과 子音의 差異)’이라는 ‘목’을 두어 소리의 發生과 技能의 두 측면에서 그 변별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1929 : 16~18)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현배의 홀소리와 닿소리 구분

홀소리	닿소리	
㉠ 모두 울음소리(有聲音)	㉠ 울음소리인 것(口 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코 등)도 있음	생겨남의 다름
㉡ 규칙있는 결(律的波動)을 일으키는 풍악소리(樂音)	㉡ 규칙 없는 결을 이루는 떠들소리(噪音)	
㉢ 발음기관의 막힘(障礙)을 입지 않음	㉢ " 막음을 입음	
㉣ 모두 입소리(口音)	㉣ 입소리(ㅂ표)와 코소리(ㅇㄴ)가 있음	
㉤ 반드시 혀바닥소리(Dorsal laut)	㉤ 모두 혀바닥소리는 아님	
㉥ 혀바닥의 가운데 줄을 쓰는 가운데 소리(Median laut)	㉥ 그렇지 않음	입함으로 본 다름
㉦ 제홀로 남	㉦ 홀로 나지 못하고 홀소리에 붙어야 남(단, 절대적 다름은 아님. 닿소리라도 스펀디...는 제 홀로 날 수 있음)	
㉧ 그대로 이어 낼 수 있음	㉧ 길게 이어 내지 못함(단 절대적 다름은 아님. 스같은 갈아내는 소리는 길게 갈아 낼 수 있음)	
㉨ 한 날내(音節)을 이룰 수 있음	㉨ 그렇지 못함(단, 절대적 다름은 아님. 영어의 'dle', 'ble'처럼 우리말도 ㄷ, ㄹ 같은 것은 그대로 한 날내를 이룰 수 있으나 實地에는 그렇지 아니함)	

<표 1>의 내용을 현대 음성학적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은 유성[±voiced]의 자질을, ㉡은 규칙적인 포먼트(formant) 구조를 갖는 특성인 공명성[±sonorant], ㉢은 장애[±obstruent], ㉣은 비음성[±nasal], ㉤과 ㉥은 혀몸자질(tongue-body features), ㉦은 지속성[±continuant], ㉧과 ㉨은 성절성[±syllabic]을 들의 구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모든 모음은 有聲音이지만 자음 모두가 無聲音은 아니어서 자음에는 有聲音 또한 있다는 것과, 소리가 모두 口腔을 통해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鼻腔을 통해 나는 것도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등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최현배는 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구분기준으로 위와 같은 변별 자질(distinctive features)들을 나열하여 모음과 자음의 音價를 음성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이렇게 최현배는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나, 결국 입안에서의 적극적인 ‘장애’의 유무로써 그 기준을 삼는 일반론에 귀착하였다.11)

11) 이러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닿소리와 홀소리의 뜻을 정확히 하기 위해苦心한 흔적은 『우리말본 첫재매』가 간행되기 이전 <한글> 제1권 제5호(1927. 7)에 게재한 「홀소리와 닿소리의 뜻」에 나타나 있다.

이극로의 경우에는 명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모음과 자음을 구분·정의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기술이 비교적 간명하다. 이극로(1932b : 156, 157)에서 모·자음을 각각 정의함에 있어, 모음은 “목청을 울리어서, 울음이 된 공기가 아무 거침없이” 조음기관을 지나 소리가 난다고 하여 [+voiced]와 [-obstruent]의 자질을, 자음은 “막힌 자리를 터뜨리거나 좁힌 자리를 갈거나 경긴 데를 떨치거나” 하여 [+obstruent]의 자질을 기술하였다. 즉 이극로 역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의 구별기준을 조음기관의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모음의 음가의 달라지는 이유에 관한 기술도 김두봉이나 최현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실험도해조선어음성학』(1947 : 15~16, 20~21)의 경우 그 기본 내용에 있어서 자음과 모음의 구별 기준과 각각의 정의는 같다. 그러나 ‘音波’, ‘共鳴管’, ‘物理적으로 생긴 音律’과 같이 술어의 변화를 주어 보다 음성학적 관점, 즉 그가 말한 生理的·物理的 關係에 입각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 모음에 대한 인식과 그 분류

주시경(1908)이 제시한 모음의 분류 기준은 高, 低, 長, 短, 廣, 狹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은 『국어문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의 소리』에서는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우리말로 풀이하였다. 주시경(1914)은 高低는 振數를, 長短은 時度, 廣狹은 器作, 強弱은 振境 곧 發勢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표 2. 주시경·김두봉·최현배의 홀소리 기준

주시경	국어문법 (1908)	「高低」는 「振數」(진동수), 「長短」은 「時度」(시간), 「廣狹」은 「器作」(물리적 廣狹설과는 다름), 「強弱」은 「振境」
	말의 소리 (1910)	*길고 자름(짧음): 소리가 나는 때의 동안 *높(높)고 낮음: 소리가 나는 몬의 울이(리)는 셈 *세고 여림: 소리의 나는 힘, 널(넓)고 좁음: 입의 쓰는 짓
김두봉	조선말본 (1916)	ㅏ 혀뒤가온소리 / ㅓ 혀뒤낮히소리 / ㅗ 입살음우리소리 ㅓ 입살좁호리소리 / ㅡ 혀몸가온소리 / ㅣ 혀앞높이소리 ㅕ 혀뒤높이소리 / ㅖ 혀앞낮히소리
	김더조선 말본 (1922)	*혀의 높낮에 따라: 단홀소리(ㅣ, ㅓ) / 반단홀소리(ㅕ, ㅗ) 반열홀소리(ㅕ, ㅓ) / 열홀소리(ㅓ) *혀의 자리에 따라: 앞홀소리(ㅣ, ㅕ, ㅖ) / 사이홀소리(ㅓ, ㅡ), 뒤홀소리(ㅓ, ㅗ, ㅓ) *입술의 끝에 따라: 입술예사홀소리(ㅕ, ㅓ, ㅓ) / 입술넙적홀소리(ㅣ, ㅕ)
최현배	우리말본 첫째매 (1929)	*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높(ㅣ, ㅡ) / 낮(ㅓ) / ㅖ(ㅓ와 ㅣ의 사이소리, 間音) ㅓ(ㅓ와 ㅡ의 사이소리) / ㅕ(ㅓ와 ㅣ의 사이소리) *넓은소리(廣音): ㅓ ㅓ ㅡ ㅣ ㅕ ㅖ / 둥근소리(圓音): ㅓ ㅓ ㅓ *혀앞바닥소리(ㅣ, ㅕ) / 혀가운데바닥소리(ㅓ, ㅕ, ㅖ) / 혀뒤바닥소리(ㅡ, ㅗ, ㅓ)
	우리말본 (1937)	*소리 고루는 자리를 따라: 앞홀소리(前母音) ㅣ, ㅓ, ㅕ, ㅖ / 가운데홀소리(中母音) ㅡ, ㅓ / 뒤홀소리(後母音) ㅓ, ㅗ, ㅓ *입 열기를 따라: 닫은홀소리(閉母音) ㅣ, ㅡ, ㅓ / 반닫은홀소리(半閉母音) ㅕ, ㅖ, ㅓ / 반연홀소리(半開母音) ㅕ, ㅓ / 연홀소리(開母音) ㅓ *입술꼴(脣形)을 따라: 넓은홀소리(廣口母音) ㅣ, ㅕ, ㅖ, ㅓ, ㅓ, ㅡ / 둥근홀소리(圓口母音) ㅓ, ㅓ, ㅓ

여기서의 ‘高低’는 단순한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기보다는 음이 높을수록 성대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음이 낮을수록 진동수 역시 낮아짐을 지적한 것으로, 성대의 진동수에 따라 소리의 높고 낮음이 좌우된다는 과학적인 인식을 내포한다. ‘長短’은 발성시간의 길이로 일반적으로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에 해당한다. 즉 모음의 음운론적 길이인 음장(Vowel length)을 나타낸 것이다. ‘強弱’의 경우 發勢라 함은 소리를 낼 때의 힘의 정도를 말함인데, 그에 앞서 ‘振境’이라 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진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성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주시경의 인식이 얼마나 진보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 ‘廣狹’의 개념이다. 주시경은 ‘廣狹’은 ‘器作’이라 하여 발생기관의 작용과 연관시켜 설정한 홀소리 분류기준으로 단순히 넓고 좁음의 ‘物理的 廣狹’과는 다르다고 단서를 붙였다. 그리고 그 예로 ‘킴킴하다’와 ‘벌’을 들어, 전자의 경우 ‘張口’, 후자는 ‘縮口’라 하였다(1910 : 12). 이에 대해 김석득(1979 : 40)은 이를 간극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벌’의 의미가 무엇인지이다. 그리고 ‘킴킴하다’의 경우 /ㄱ/ 뒤에 오는 양순음 /ㅁ/의 영향으로 ‘벌’의 /ㄱ/보다 입술이 둥글게 뒹어 주목한 것이지, 아니면 /ㄱ/ 자체의 변이음에 대한 설명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하나 그의 제자인 최현배의 경우 ‘廣狹’을 원순과 비원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시경의 ‘廣狹’의 개념 역시 원순과 비원순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음의 물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음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소리 분류의 한 기준으로 취하였다. 이는 현대 언어학의 분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대에 있어서 모음의 보다 본질적인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김두봉은 주시경의 과학적 소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현대 언어학에서와 같이 혀몸 자질인 [\pm back], [\pm high]와 원순 자질인 [\pm rounded]를 기준으로 홀소리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혀의 높낮 곳 입의 열단에 매인 것, 혀의 앞뒤에 매인 것, 입술의 끝에 매인 것, 코구멍 쓰얹에 매인 것’을 그 갈래의 기준을 삼아 조음시 구강 모양의 변화에 따라 홀소리를 나누었다. 여기에서 ‘코안에 쓰인 것’은 ‘코홀소리’로 우리말에는 없다고 하였다(1922 : 29). 그리고 각각에 속하는 개별음들을 제시하였는데 『조선말본』(1916)과 『김더조선말본』(1922)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는 『조선말본』에서 중고모음으로 처리했었으나 『김더조선말본』에서 저모음으로 수정하였고, /히/는 『조선말본』에서는 중저모음이라 했었으나 『김더조선말본』에서는 고모음으로 바로 잡았다. 한편 /ㅏ/의 경우 『조선말본』에서는 [-high, -low]로 했었으나 『김더 조선말본』에서는 저모음으로 수정하여 현대음성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모음체계를 세웠다.

최현배(1937)는 김두봉과 같은 기준에서 모음을 분류하여, ‘소리 고루는 자리를 따라’, ‘입 열기를 따라’, ‘입술꼴(脣形)을 따라’의 견지에서 홀소리의 갈래를 기술하여 더욱 체계화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말본』의 모음 삼각도에서는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서 ‘입술을 예사로 하여 내는 소리’로 /ㅣ, ㅑ, ㅓ/ 등을 따로 둔 것과 /ㅜ/를 홑홀소리에 포함시켜 모음삼각도에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두봉(1922)과 동일하다.

이극로 역시 김두봉과 최현배와 동일한 기준, 즉 [\pm back], [\pm rounded], [\pm high]로 모음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선말의 홑소리』에서 보이는 모음삼각도에서 /ㅜ, ㅑ/를 첨가시켰는데, /ㅜ/의 경우 최현배(1937)의 모음삼각도에서와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

해서는 주시경이 이를 /l/와 /r/가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본 이후로 김두봉, 최현배 모두 이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한글』 제5권 8호에 기재한 「“·”의 音價에 對하여」(1937b)에서는 이중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보아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극로는 그 음가를 究明하는 데에 있어서 주시경과 다른 학자들이 비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극로는 실제로 제주도 방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실험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취하여 그 동안 이중모음으로 보았던 /·/를 단모음임을 입증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4. 자음에 대한 인식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 훈민정음의 자음 분류 체계와 같이 牙·舌·脣·齒·喉의 조음위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국어문법』(1910)과 『말의 소리』(1914)로 오면서 조음 장소에 따른 자음 분류법은 삭제되고 단음과 중음의 구별을 중심으로 변화된다. 즉 주시경은 자음을 분류함에 있어 훈민정음 체계를 재해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음성학적인 관점보다는 음소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김두봉의 자음 분류는 대단히 발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김두봉이 『김두봉조선말본』(1922)에 기술한 ‘닿소리의 갈래’는 개별음을 음성학적으로 고찰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현대음성학과 비교해 거의 손색이 없다. 김두봉은 자음을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나누고 있다¹³⁾(1922 : 18~23). 우선 첫째 기준은 ‘여뿔막음의 자리에 매인 것’ (1922 : 18~20)이고, 둘째로는 ‘막음의 갈래와 짊(程度)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1922 : 20~21), 셋째는 ‘목청소리를 띄고 아니뿔’(1922 : 21)이다. 이는 각각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 그리고 유성과 무성의 구별을 의미한다. 김두봉이 국어자음체계를 도표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김두봉의 자음분류는 주시경의 문자론적, 음소론적 관점을 뛰어 넘어 음성학적 기준에 입각하였다. 즉 조음위치와 조음방식, 그리고 유/무성에 따라 그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국어음성학의 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 현대언어학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나 세분화에 있어 ‘입술과 니의 막음’이나 ‘혀끝과 니의 막음’, 그리고 ‘떨소리’ 등과 같이 우리말의 현실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되며 이는 영어음성학에서의 자음분류에 가깝다. 이러한 점은 최현배에서 보장된다.

최현배는 『우리말본 첫재매』에서 김두봉과 마찬가지로 조음방식과 조음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였다. 우선 조음방식에 따라 ‘코소리’와 ‘터짐소리, 흐름소리, 같이소리’로 나누었다. 김두봉이 비음을 폐쇄음에 포함시킨 것에 비해 비강을 통한 공기의 흐름으로 얻어지는 조음방식에 주목하여 폐쇄음(파열음)과 분리하였다. 한편 파찰음인 /ㅈ, ㅊ/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터짐소리(파열음)에 포함시켰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두입살소리(兩脣音)’와 ‘혀끝소리(舌端音), 혀바닥소리(舌面音), 혀뿌리소리(舌根音), 목청소리(聲帶音)’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술어를 선택함에 있어 김두봉의 경우 조음점과 조음체의 상호작용의 결과 만들어지는 장애지점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최현배(1929)는 주로 조음

13) <김두봉조선말본>(1922)에 앞선 <조선말본>(1916)에서는 자음 분류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조음시 일어나는 음성학적인 것이기보다는 그 소리들이 주는 어감, 곧 청음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국어문법』에서는 ‘훗소리’와 ‘겹소리’로 다시 명명하고 ‘겹소리’는 ‘섞임·덧· 짝소리’라 하면서, 『국어문전음학』에서 /ㅎ, ㅎ/을 제외시킨 나머지 열 개의 자음들을 단자음에 포함시켰다. 『말의 소리』에서는 ‘겹소리’를 ‘거듭소리’라 하고 기존의 구별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두봉은 단자음에 있어서 주시경(1914)과 동일하게 열 개의 자음들을 택하였고, ‘소리의 거듭(合함)’을 “같은 갈래의 소리들끼리 만날 때 어울려 한 덩이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섞임거듭’(/ㄱ, ㄷ, ㅍ, ㅊ/)과 ‘짝거듭’(/ㄱ, ㄷ, ㅂ, ㅈ, ㅍ/)의 경우 조음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단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부언하여 주시경의 분류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시경(1914)과 동일한 분류를 하였다. 이것은 개별음들이 지닌 소리의 음가보다는 음운 과정 중 분절음의 관점에서 본 발음의 변화에 주목한 결과이며, 이는 최현배에게까지 이어진다.

최현배는 『우리말본 첫재매』에서 주시경, 김두봉과 동일하게 ‘훗’과 ‘겹’을 분류했으나 『우리말본』에서는 여기에 /ㄱ, ㄷ, ㅂ, ㅈ, ㅍ/를 포함시켰다.¹⁴⁾ 그러나 /ㄱ, ㄷ, ㅍ, ㅊ/의 경우에 소리의 앞뒤가 다르다하여 ‘거듭’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현배 역시 주시경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즉 최현배는 ‘훗’과 ‘겹’을 나눔에 있어 첫소리와 끝소리의 동일 여부에 주목하여 음성학적으로 접근, 경음들을 단음으로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거듭소리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형태음소론적인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극로의 경우 /ㄱ, ㄷ, ㅍ, ㅊ/ 뿐만 아니라 /ㄱ, ㄷ, ㅂ, ㅈ, ㅍ/를 단음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조선말소리갈(實驗音聲學)』(1930)에서는 ‘스물둘훗당소리’라 하여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모두 복자음으로 포함시켰던 /ㄱ, ㄷ, ㅍ, ㅊ/를 단자음으로 삼은 점과 /ㅣ(y), ㅍ(w)/를 단자음에 넣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구별이 모호하여, 두 음절 이상을 발음하는 데에 있어 연음현상이 일어날 경우 ‘거듭’으로 볼 수 있다(1930 : 29)고 하였다. 『실험도해 조선어음성학』에서는 자음의 ‘훗’과 ‘겹’의 구별이 음성학적인 면만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하여 그 논의를 접었다.

IV. 결 론

국어학사에 있어 음성학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활발하지 못하다가, 개화기에 들어 서구의 음성학 이론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음운학과 접목되어 우리말소리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특히 주시경은 말소리에 대해 독창적인 이론들을 정립하였으며, 음성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김두봉과 최현배는 조음음성학을 도입, 체계화하여 국어음성학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여기에 이극로가 실험음성학을 도입하면서 현대음성학에 근접한 면모를 갖추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 이에 대한 이유는 『우리말본』 p. 46에서 설명하였다.

1) 주시경은 '소리갈'을 두어 음성·음운론의 장을 따로 둔 것은 음성학을 언어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주시경의 기술체계는 후대의 전형이 되었으며, 김두봉과 최현배를 거치면서 체계화된다.

2) 주시경에게서 始發된 국어의 음성학적 연구는 김두봉과 최현배로 이어지면서 조음 음성학적, 생리음성학적 연구의 방향으로 보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극로에 와서는 실험음성학이 도입되어 국어음성학의 획기적인 방법론이 제시된다.

3) 모음과 자음을 구별함에 있어 주시경은 음절 구조상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에 비해 김두봉은 둘의 음성학적 자질([±voiced], [±obstruant])의 차이를 인식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는 최현배, 이극로로 이어진다.

4) 주시경의 경우 모음간에 보이는 차이를 물리음성학적으로 인식하였으나 그 분류에 있어 개별음들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두봉은 조음시 구강 내의 조음기관, 특히 혀의 작용이 홀소리의 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주목하여 [±high], [±frontal], [±rounded]의 자질을 기준으로 개개의 홀소리들을 분류하였다. 즉 김두봉은 조음적·생리적인 면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국어 음성학에 있어서의 현대적 홀소리의 분류법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최현배와 이극로는 계승하였다.

5) 자음의 분류에 있어 주시경의 전통 음운론적이거나(1908) 單·複 중심의 문자론적 기준(1910, 1914)이 김두봉으로 오면서 조음위치, 조음방식, 유/무성의 기준으로 변모하고, 여기에 최현배와 이극로로 오면서 기의 유무를 더하였다.

6)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구별에 있어 주시경은 분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김두봉-최현배-이극로는 소리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극로의 경우 모음에 있어 /ㄴ/만을 이중모음으로 처리한 점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단자음과 복자음의 구별에 있어서는 주시경의 음소론적인 기준에서의 분류를 김두봉, 최현배가 이어 경음과 유기음을 '겹'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를 이극로가 '홑'으로 처리한 것은 음성학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신항(1995). 국어학사(증보개정). 보성문화사.
- [2] 고도홍(1992). 국어음성학의 발자취와 연구현황, 국어학연구백년사, 고영근·성광수·심재기·홍중선 편, 일조각.
- [3] 김두봉(1916). 조선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8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 [4] _____(1922). 김더 조선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8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 [5] 김석득(1979). 주시경 문법론. 형설출판사.
- [6] 유길준(1908). 대한문전,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 [7] 이극로(1930). 조선말 소리갈(朝鮮語音聲學), 신생 제3권 제9호, 경성; 신생사.
- [8] _____(1932a). 말소리는 어디서 어떠한가, 한글 제1권 제2호, 한글학회.
- [9] _____(1932b). 조선말의 홑소리, 한글 제1권 제4호, 한글학회.
- [10] _____(1934). 조선말 소리, 한글 제2권 제5호, 한글학회.

- [11] _____(1938). 나의 이력서-半生記, 조광 1938.10.
 [12] _____(1947). 실험도해 조선어음성학, 아문각.
 [13] 이중건(1927). ㄱ형을 생각함, 동인지 한글 제1권 제3호, 한글학회
 [14] 주시경(1908). 국어문전음학,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4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15] _____(1910). 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4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16] _____(1914). 말의 소리,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4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17] 최광옥(1908). 대한문전,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18] 최현배(1927a). 홀소리와 닿소리의 뜻, 한글 제1권 제5호, 한글학회.
 [19] _____(1927b). 조선말과 흐린소리, 한글 제1권 제6호, 한글학회.
 [20] _____(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17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21] _____(1937). 우리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18책, 김민수 편, 탑출판사, 1983.

접수일자 : 2000. 10. 31.

게재결정 : 2000. 12. 1.

▲ 이숙희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우: 200-702)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Tel: +82-33-240-1180, 017-371-0680

Fax: +82-33-252-8617

E-mail: lshui@hanimail.com

▲ 고도홍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우: 200-702)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Tel: +82-33-240-1205, 011-371-2023

E-mail: dhko@sun.hallym.ac.kr, dhko1205@korea.com